

민선 6기 취임 100일 인터뷰

복지사각 해소·골목상권 활성화 노력
市 산하 정실·측근인사 방지 대책 강구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그동안 원 구성과정에서 진흥이나 집행부와는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더 성숙한 의정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조영표 의장은 8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때 밝혔던 ‘함께하는 시민의회, 신뢰받는 시민의회’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지방의회는 그동안 시정의 동반자로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왔다고 자부하고, 시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의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집행부와 조직개편 문제 등의 갈등과 관련해 “저는 시와 의회가 무조건 소통되기 보다는 각자의 역할 속에 견제와 협력 등 균형을 이뤄야만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 진정한 시민자치시대가 실현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회는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의 큰 틀 안에서 협력하겠지만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신해 꼼꼼하게 따지고 약속사항을 챙길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앞으로 시정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와 각종 소위원회와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민선 6기 들어 운 시장의 재검토 발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선수촌 건립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민선 6기 시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취임 초기 관피아 철저 배제는 물론 산하기관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한 인사혁신과 책임 경영체제를 강조했던 윤장현 시장은 의회와 지역사회의 지적에도 보은·정실·측근 인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시의회는 이런 인사가 되풀이되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지방단체협의회에서 공기업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현재 광주시의 주요현안 중 시급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복지사각시대 해소와 골목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선 6기 들어 운 시장의 재검토 발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선수촌 건립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의회 사무처 독립·보좌관제 시급
국제교류 등 확대 의원 전문성 확보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100일을 너무도 바쁘게 살다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집행부의 배려로 큰 불협화음 없이 지금까지 함께 왔으며, 앞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협조하고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은 취임 당시 인터뷰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을 강조했다. 도의원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해 연구하고 주민들을 자주 만나야 하며, 집행부는 도의회를 존중하고 전남도 발전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 의장은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즉 의회사무처 독립과 보좌관제 시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년에 수조원의 예산과 수백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의원들을 보좌할 인원이 한 명도 없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마저도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원들을 보좌할 직원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잘못된 인사를 심사하는 의원들을 보좌할 인원이 한 명도 없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마저도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원들을 보좌할 직원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잘못된 인사를 심사하는 의원들을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역



명 의장은 “더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의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문기관 연수 프로그램 참여와 국제 우호교류 등 다양한 의정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광주·전남 상생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와 불협화음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이 명 의장의 말이다.

그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확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찾아 해결하는 등 건전한 비판과 조화로운 견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명 의장은 공동운영체인 광주와 전북,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 차원에서 호남권 상생협력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도 밝혔다.

명 의장은 전남의 가장 큰 문제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규정하고 “젊은층이 지역에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명품섬 후보지 이달말까지 선정

‘숲속의 전남 10개년 조성계획’ 수립도

전남의 명품섬 개발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를 이달 말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달중으로 현장조사 및 개발가능성 분석을 마칠 예정이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이낙연 전남지사가 출몰 강조해오고 있는 ‘기존 자산의 재발견’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10여 곳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전남도 내 여러 섬을 현장 방문했고, 일부 유력인사들은 이 지사에게 직접 ‘추천’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다만 다도해국립공원 내 섬의 경우 개발하는데 법·제도적 제약이 큰데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섬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 실적이 없어 기업들의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외 초일류 부후, 대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명품 휴양섬’ 개발 주체를 ▲대기업 등 국내 대자본 ▲중국 투자자 및 중견기업 등 구분하기로 했다. 대기업 등은 헬기나 요트로만 접근이 가능한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규모가 작은 섬을, 중국투자자 등은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뛰어난 섬을 선호하는 등 투자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개발 대상이 되는 명품섬으로 당초 9개 시·군의 27개 섬이 추렸으나 법적 제한 사항 및 문제점, 거주민 다수 등의 제약조건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수,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에는 의무적으로 3곳 이상을, 나머지 시·군은 자율적으로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섬 개발에는 자연공원법,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등

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상지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이달 내로 개발 후보 섬을 선정할 뒤 투자유치 설명자료를 제작해 내년부터 대기업, 중국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대명콘도, 이랜드, 미래에셋 등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전남 섬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전남도는 또 이지가가 취임 100일을 맞아 전남의 새로운 브랜드화 대상으로 ‘섬’과 ‘숲’을 선정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가고 싶은 섬 10개년 계획’과 ‘숲속의 전남 10개년 조성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명품 휴양섬 투자유치 도·시군 추진협의회, 숲속의 전남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윤 시장 취임 100일 맞아

‘시민께 드리는 폐북 편지’

윤장현 광주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시민께 드리는 편지’를 올렸다.

윤 시장은 8일 “오늘은 광주시민께서 윤장현이란 이름 앞에 ‘시민시장’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신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며 “그간 길에서, 혹은 행사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해주신 ‘시민을 위한 시장이 돼 달라’는 당부와 함께 애정어린 조언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롭게 생을 마감한 어느 고려인의 사연에 마음이 아팠고, 한 중증근육장애인이 전통집대에 의지한 채 찾아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으로 가족과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라며 100일동안 기억에 남았던 일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명량대첩축제, 해남·진도 울돌묵서 열린다

오늘부터 4일간

417년 전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둔 명량대첩 신화를 기념하는 2014 명량대첩축제가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해남·진도 울돌묵 일원에서 개최된다.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묵!’이라는 주제로 실제 명량해전이 벌어졌던 울돌묵을 주무대로 개최되는 이번 명량대첩축제는 당시 승전일인 음력 9월16일에 맞춰 개막,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과 호남 민중의 의로운 희생정신을 일깨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영화 ‘명량’을 보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 해전 재현에 참여하는 선박의 규모와 주민 참여 인원을 크게 확대하는 등 해전 재현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난해 1~3등급 어선 80여 척과 해남과 진도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5~10등급 선박 100척과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다. 또 1만5000발의 폭약 등 특수효과를 사용한다.

축제를 국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와 역사교육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명량대첩 역사정복 원정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축제장 주변의 역사적 장소를 돌아보면서 체험하는 스텝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며, 충남·경남·전남지역 대학생 200여 명이 구례에서 울돌묵까지 이어지는 ‘조선수군 재건로’를 탐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화 배급사인 CJ의 지원을 받아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량’을 10일 진도 관내초등학교 체육관, 11일 해남 우수영 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각각 무료 상영한다. 10일에는 영화를 제작한 김한민 감독이 감사인사와 함께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도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5,000만원 경품 1,479 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경품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신청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응모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 이상 신청, 기존유지고객

응모권교부조건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5등 자전거 12명
2등 드림세탁기 3명	6등 생활용품세트(大) 90명
3등 제습기 9명	7등 생활용품세트(中) 150명
4등 쿠키인력합술 12명	8등 아차상 1200명

※동급시은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등까지는 참석자 본인에 한하여 경품 지급합니다.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671-5000 (KBC광주광역시지회)

양림지점 652-9203 (기동명원아래)

완산지점 364-7557 (대성초교사거리)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사랑의 울돌묵 500가마 2,400만원

장학금 2,400만원

소화기 100대

다문화 가정 지원

독거노인 소화기 100대

광주지역 자산 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1년 3%)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사점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